

KOICA는 2014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업을 계기로
캄퐁스푸주 소봉르 마을 주민들은 사업요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식수시설을
구축하고, 취약한 식수 접근성 문제를 해결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ICA INSIDE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말하는 ODA
OVERSEAS KOICA 두 얼굴의 섬 '민다나오'의 개발과 현실
KOICA VIEW 1000개의 언덕에서 되찾은 농민의 미소

지구촌 가족

2017. Winter
Vol. 7
World's Friend KOICA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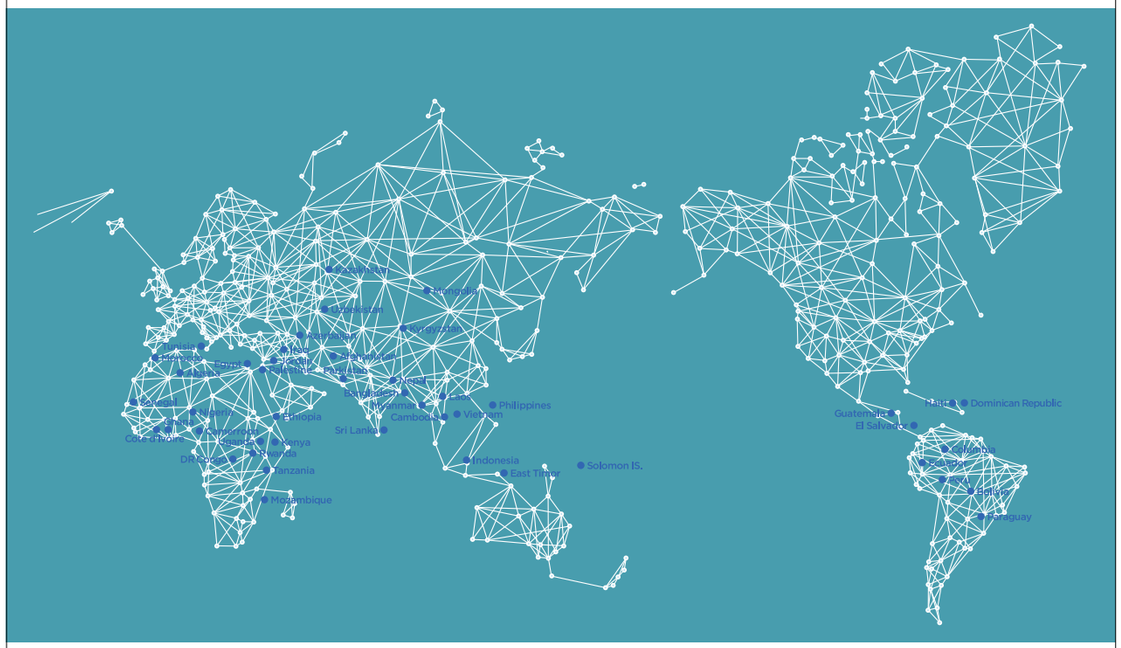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NK ODA, WITH KOICA
WWW.KOICA.GO.KR

ABOUT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대외무상 원조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자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KOICA를 설립하였습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국제기구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ICA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환경, 인구, 질병,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TENTS

2017. Winter / Vol. 7

KOICA INSIDE
코이카 人사이드

04
KOICA 홍보대사 엄홍길 대장이 말하는 ODA
"지구촌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죠
그 마음이 ODA의 출발점입니다"

08
르완다 학교에 음악을 가르치는
김정임 봉사단원
"노래하는 기쁨과 열정으로 성장하는
르완다 아이들"

10
엘살바도르서 한국어 가르치는 파티마 무뇨스
"KOICA 연수 때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고국에서 무상으로 가르치니 환영받네요"



KOICA VIEW
코이카 뷰

12
KOICA의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1000개의 언덕에서 되찾은 농민의 미소

16
KOICA의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마을 주민들의 잠재력을 깨우다

18
'스마트농업' 전수하는 이다영 봉사단원
"인도네시아에 희망의 꽃 심고 싶어요"





OVERSEAS KOICA
세계 속 코이카

20
40년 넘은 '뜨거운 감자'폭탄과의 전쟁
불발탄 제거로 '안전'과 '성장' 꿈꾸다

22
두 얼굴의 섬 '민다나오'의 개발과 현실
잃어버린 낙원에서 약속의 땅으로

24
KOICA의 파라과이 항공 발전
마스터플랜 사업
남미의 심장에 항공 허브의 새싹 틔우다

WHAT'S ODA
ODA 알아보기

26
필리핀 갯벌에서 꼬막을 캔다고?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필리핀에
양식기술 제공

28
IT 기업 메가존의 메가 서포트
베트남 수공업자에게 해외 판로 제공

30
최빈국 아이티에 최신 교육환경 조성
세아상역, 학교 세워 희망을 전파하다

World's Friend
KOICA

발행인 이미경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17-11-143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462-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코이카 홍보실 **제작**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조광프린팅

KOICA 뉴스레터 〈지구촌가족〉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KOICA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의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7년 10월호 'KOICA 人사이드'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710/content1.php?code=201710_010101

KOICA 홍보대사 엄홍길 대장이 말하는 ODA

"지구촌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죠 그 마음이 ODA의 출발점입니다"

히말라야 8000m 16좌를 세계 최초로 완등하며 산악인으로서 정상에 올랐던 엄홍길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홍보대사. 그는 이제 히말라야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KOICA 홍보대사로도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Q_2010년부터 줄곧 KOICA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산악인으로서 ODA나 KOICA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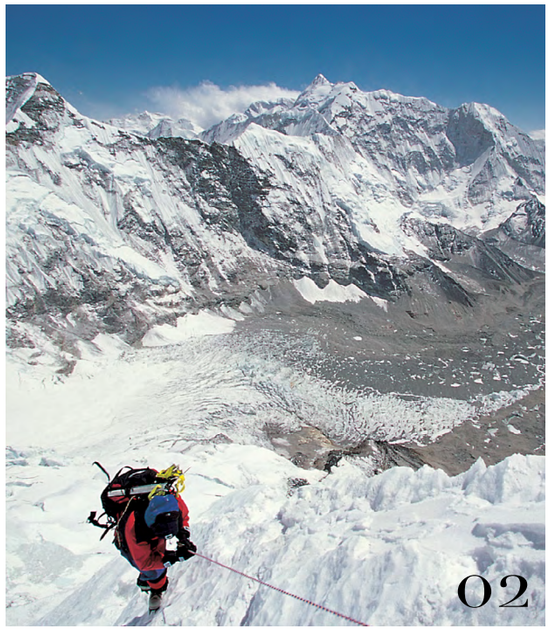
"제가 1985년부터 히말라야 원정을 시작했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네팔,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네팔에 자주 가게 되면서, 그곳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현지인들이 처한 환경의 열악함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던 차에 그들을 위한 NGO나 국제 구호단체들의 활동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 덕분에 KOICA에서 연락이 왔을 때 기꺼이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줄곧 KOICA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지요."

Q_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엄홍길휴먼재단'을 통해서 KOICA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요.

"네, 우즈베키스탄과 피지,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KOICA 홍보대사로서 해외 현지 봉사에 참여한 적도 있고요. '엄홍길휴먼재단'이 히말라야 산간,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2개 학교가 KOICA와의 협력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에 서로 힘을 보탤 수 있으니, 좋은 일이죠."

01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엄홍길 KOICA 홍보대사.
02
2007년 히말라야 로체샤르 등정 길에 오른 모습.


01


02

글 · 정자림(조선뉴스프레스 기자)
사진 · 배상훈 자료사진제공 · 엄홍길휴먼재단

Q_산악인뿐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휴머니스트'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가난과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건 어른, 아이 할 것 없죠. 하지만 아이들만이라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직후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67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문화 전반에 '한류'라는 붐을 조성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교육의 힘이죠. 배우고 깨우쳐야만 변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꿈도 희망도 없이 자라는 산간지방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환경을 바꿔줘야죠.

마침 KOICA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들 역시 저의 이러한 철학과 잘 맞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일맥상통하다 보니, 공감하게 되고 결국 협력해서 좋은 일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01



02

Q_'엄홍길휴먼재단' 설립 후 9년 만에 무려 12개의 학교를 설립한 성과가 놀랍습니다. 학교 건립 사업 외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지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열악한 교육시설과 의료 상황은 사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단 며칠 만에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름했던 시설을 일부 보수하거나, 학교 벽을 칠해주는 등의 작업은 비교적 단기간 봉사로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일들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아주 작은 성의일 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현지 아이들과 단 며칠이라도 지내 보면 아이들이 이 작은 변화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그 행복한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흐뭇한지, 도와준다고 갔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돌아오곤 합니다."

Q_개발 현장에서 직접 활약하면서 해외 개발협력기관이나 구호단체들의 활동도 목격한 사례가 많으니, KOICA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개발도상국 역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상황도 제가 처음 갔을 때와는 많이 다르죠. 네팔의 첫 터널과 국제공항이 모두 일본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 자이카)의 지원으로 건립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목도 더 집중되고 성과가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한편 KOICA는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매우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교나 의료시설, 기술지원 등 어찌 보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지원보다 '어떤 개인의 삶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가 뚫리고 공항이 생기면 그 나라의 제반시설이 좀 더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병원, 기술교육은 다르지요. 당장 아픈 곳을 치료하고, 새로운 꿈과 의지를 갖고, 자립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KOICA가 비교적 적은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강점이다' '약점이다' 하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가 저마다 주어진 상황과 역량에 따라 지원의 범위나 방식도 달라지니까요. 규모가 큰 사업도, 디테일한 사업도 모두 현지에 필요한 도움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들입니다."



03

01
엄홍길재단이 설립한 첫 휴먼스쿨, 팡보체 휴먼스쿨 어린이들과 함께한 기념 사진.

02
2017년 3월, 열네번째 휴먼스쿨인 둘리켈 휴먼스쿨 기공식이 열렸다.

03
타르푸 휴먼스쿨 어린이들과 함께한 엄홍길 KOICA 홍보대사.

Q_네팔의 변화를 바탕으로 JICA와 KOICA의 지원 규모와 방식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차이의 배경이 뭘까요? 건설 쪽이라면 대한민국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규모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널이나 공항처럼 대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부터 차원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예산 문제는 KOICA가 단독으로 타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ODA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부터 바뀌어야겠죠.

자국 국민들끼리 잘 살자는 마음은 굉장히 협소한 생각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예산이 남아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더욱이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ODA에 대해 책임감과 열린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_ODA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관건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네요. 2015년에 네팔이 강진 피해로 어려울 때 저 역시 바로 달려가서 구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정신없는 와중이었음에도 각 국가의 지원 규모가 눈에 보이더군요. 물론 지원 규모와 여력은 국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 인식도 매우 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다른 나라의 아픔에 대해서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Q_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현재 엄홍길휴먼재단을 통해 네팔에서 학교 짓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촌 모두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KOICA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동참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KOICA 홍보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르완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정임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의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7년 10월호 '세계 속 KOICA'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710/content2.php?code=201710_010207

르완다서 음악 가르치는 김정임 봉사단원
"노래하는 기쁨과 열정으로 성장하는 르완다 아이들"

음악 교과도 없고, 악보를 볼 줄 모르는 르완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학교와 교육청을 오가며 일하는 월드프렌즈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봉사단원 김정임씨를 만났다.



Q_간단한 소개와 담당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르완다교육청 교사개발연수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 108기 김정임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가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교육과 음악 교수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레메라 가톨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Q_KOICA 봉사단원으로 지원하신 이유와 지금까지 르완다에서의 생활 소감이 궁금합니다.
"항상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오래도록 의미가 남는 일에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캄보디아로 단기 봉사를 갔는데, 몸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막상 활동을 하면 안에서 에너지가 솟는 걸 느꼈어요. 그때 '내가 봉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어 KOICA 단원으로 지원했습니다."


01

Q_르완다의 음악 교육 실태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일단 음악은 선택교과라 여태까지 시험이 없었고, 학교에 가 보면 음악 담당 교사도 없어요.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들도 영어나 수학교사인데 시간이 날 때 음악을 가르치는 식이죠. 학교마다 지원을 받아 피아노를 구비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칠 줄을 모르니 그냥 교실 구석에 놓여 있어요. 음악 교육이 당장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아무래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어요.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르완다어 노래 자체가 없다는 얘길 듣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어린이 합창단도 시작하게 됐죠. 르완다 전통음악 자체가 음정 위주가 아닌 리듬 위주라 아이들의 기본 음감이 부족하고 악보도 읽지 못해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래도 교사를 가르칠 때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게 보여서 뿌듯합니다."

Q_르완다에서의 음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음악은 다른 학문들과 달리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경제 수준, 나이,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가 자신들만의 음악을 가지고 있어요. 기쁠 때 박수를 쳐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박수를 치듯 자연스러운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음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르완다는 오랜 식민지 시기와 제노사이드라는 아픈 역사를 거치며 그들 고유의 음악을 악보화하지 못했어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기록하고 남겨서 세계의 다른 국가에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Q_지난 9월 개최한 음악 컨퍼런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와 두 분의 음악단원이 함께 올 초부터 준비한 협력활동입니다. 처음엔 교사들의 피아노 실력이 늘지 않아서 목표를 두고 연습시키기 위해 콘서트를 기획했어요. 교사들이 평일엔 학교 수업이 있으니 주말에만 레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음악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교육청과 관계자들에게 제고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컨퍼런스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02


03

01
합창단 학생들에게 '아리랑'을 지도 중인 김정임 단원.
02
음악 컨퍼런스에 참여해 다양한 교재를 보고 있는 르완다 음악교사들.
03
음악 컨퍼런스 단체사진. 김응중 르완다 대사와 조형래 르완다사무소장, 르완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Q_단원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피아노 실력이 단기간에 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과정보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교사들을 가르칠 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교육청의 지원도 별로 없어서 교사들이 참여를 못할 때도 있고요. 교육을 받으러 오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을 때마다 다음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해주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이죠. 그래도 많은 교사들과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열정을 보면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Q_내년 4월 귀국 예정이신데 그때까지의 활동 계획과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우선 컨퍼런스가 끝나면 12월에 지역 단위 연수가 있어요. 그게 끝나면 교육기술이 없어 난감해 하는 교사들을 방문해서 수업을 참관하고 교수법을 지도해줄 계획이에요. 음악 교육은 궁극적으로 르완다 교사들이 해나가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제가 떠난 뒤에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 연수가 활발히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글, 사진 · 김다현(KOICA 르완다 사무소 영프로페셔널)


01

엘살바도르서 한국어 가르치는 대학생 파티마 무뇨스

"KOICA 연수 때 배운 경험 고국에서 환영받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가 들리는 곳은 다름아닌 엘살바도르 국립대학교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선생님도 바빠졌다. 선생님은 바로 엘살바도르 대학교의 재학생 파티마 무뇨스씨.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엘살바도르에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차세대 한국어 인재양성'에 대해 알아봤다.

KOICA의 차별화된 '차세대 한국어 인재 양성' 프로젝트

KOICA는 개발도상국에 한국어, 한국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차세대 한국어 인재양성'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한국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한국에 직접 초청해, 한국어 기본강의와 문화특강,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연수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운영됐다.
무뇨스씨는 지난해 이 연수사업에 참여해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한국 '알리미'로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Korea.net의 명예기자로 활동하며, 한국 진출을 향한 그녀의 꿈에 더 다가가고 있다.

글 · 김지윤(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 파티마 무뇨스(엘살바도르 대학교)

Q_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전공이 국제관계학이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2013년 당시, 저희 학교와 KOICA가 협약을 맺어 한국인 한국어 봉사자들이 파견을 왔었습니다. 저는 수업에 등록해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진출의 꿈을 키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KOICA가 엘살바도르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갈수록 한국이 배울 점이 많은 국가란 걸 느꼈습니다."

Q_연수는 어떻게 지원했나요?

"한국어 선생님이 추천했습니다.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물론 당시에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연수에 참여하면 약 1년을 휴학해야 하고 그만큼 졸업이 늦어져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훗날 한국 유학을 가더라도 짧게나마 현지 경험이 있다면 적응이 수월할 것 같았고, 한국어 교육 전문역량도 기르고 싶었습니다. 마침 연수 지원 당시 치안 문제로 한국어 교사 상당수가 엘살바도르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 교육법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고국에서 직접 한국어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01 파티마 무뇨스(맨 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씨와 함께했던 '차세대 한국어 인재양성' 연수생들의 모습.
02 파티마 무뇨스씨가 가르치고 있는 엘살바도르 대학교 한국어 수업의 모습.
03 파티마 무뇨스(오른쪽)씨가 이정난 지도 선생님(왼쪽)에게 연수 수료증을 건네받은 모습.


02


03

Q_실제 연수를 받아 보니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고, 어떻게 활용했나요?

"'자기 계발'과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연수에서 배운 한국어를 잊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고자 엘살바도르에 돌아오자마자 TOPIK*에 도전했어요. KOICA 장학금 덕분에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4개월의 연수 기간은 저에게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역사를 배우며 '한국'에 더 매력을 느꼈어요. 귀국 후에는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친구들과 나누고자 한국어 수업을 열었죠. 순천향대학교에서 배웠던 교과 과정을 적용했지만, 현지 수업 여건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저를 응원했고, 다른 한국어 수업이 없었기에 수요 또한 높았습니다. KOICA를 통해 무상 교육을 받은 만큼 제 강의 역시 무상으로 진행해 더 환영받았습니다."

*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

Q_Korea.net에서 일을 시작한 계기와 명예기자로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Korea.net은 대한민국 뉴스, 경제, 역사, 문화, 관광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엘살바도르로 돌아온 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어 능력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Korea.net의 명예기자 모집 정보를 알려줬고, 용기를 내 지원했습니다. 지원서에는 KOICA 연수 경험과 진행 중인 한국어 수업에 대해 작성했어요. Korea.net 담당자가 제 활동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명예기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주된 임무는 Korea.net에 게재될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 영상 제작입니다."

Q_기사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요?

"KOICA 연수 기간 중 접했던 한국만의 색다른 문화, 즐거웠던 시간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위험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밤 문화, 대학 생활, 한국 문화·역사 현장 투어 경험 등에 대해서요.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엘살바도르에서 열리는 한국 관련 행사에 참석해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Q_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2013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순간 제 꿈은 확실해졌습니다. KOICA 한국어 연수과정에 참여한 것도, Korea.net에서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모두 꿈을 향한 과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면서 한국 유학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종 목표는 한국 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후 엘살바도르로 돌아와, 자국의 교육 분야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KOICA의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7년 10월호 '세계 속 KOICA'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710/content2.php?code=201710_010206



01



02



03

KOICA의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1000개의 언덕에서 되찾은 농민의 미소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뭄과 영농 기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완다의 농촌.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2014년부터 르완다 농축산자원부와 함께 우리나라 농촌개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01
농민들이 경사지에 테라스 농지를 조성하고 있다.
02
경사지에 심기 위한 망고와 아보카도 묘목을 기르는 르완다 농민들.
03
토마토밭의 관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로에 자란 잡초와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글, 사진 · 김다현(KOICA 르완다 사무소 영프로페셔널)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7.WINTER



01

농촌 빈곤 해결하고 농민 삶의 질은 높이고

르완다는 1000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듯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전체 영토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한 크기(24,210 ㎢)로 경지 면적이 작다. 여기에 가뭄 등의 재해와 농민들의 영농 기술 부재가 더해져 낮은 생산량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르완다는 전체 인구의 75%가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빈곤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영농 연구와 지도 사업을 펼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농촌 지역의 빈곤 경감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2014년부터 르완다 농축산자원부와 함께 우리나라 농촌개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사업(이하 RCSP 사업, Rural Community Support Project)을 펼치고 있다. 르완다 사무소에서는 3명의 한국 전문가 주도로 루테라나(Ruterana), 카제부바(Kajevuba), 부아냐(Bwanya), 카욘욤바(Kayonyomba), 루지감보고(Ruzigambogo), 윙과부(Rwinkwavu) 등 총 6개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 단위 중심의 사업(PCU · Project Community Unit)을 진행하고 있다.

01
습지를 개간해서 만든 논(루지감보고 지구)

습지와 경사지 개발로 최대 3모작까지 가능

RCSP 사업은 부족한 농지면적을 확대하고 우량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과 산 사이의 습지와 습지 주변의 산비탈 경사지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두 번의 건기와 우기로 구성된 르완다 기후는 보통 1년에 2모작을 할 수 있는데, 농지가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다행히 RCSP 사업으로 개발된 습지의 관개 농지는 생산성도 높고, 1년 3모작까지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습지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작물인 채소류와 벼농사가 잘 되어 농민들의 수익을 늘리는 데 적합하다. 사업을 통해 습지의 농지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었고, 관개 시스템을 개발해 농사에 알맞게 물을 댈 수 있도록 했다.

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비탈인 경사지의 경우,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에 토양이 침식되어 산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토심이 깊은 지역은 계단 형식의 농지, 즉 테라스로 조성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침식 방지 작물인 과수와 아보카도,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등 수익성이 있는 나무를 심어 경사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전문가 파견… 현장 교육으로 영농 기술 향상도

대부분의 르완다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방식'이란 농민들이 자급자족을 위해 다양한 작물을 심어 비료도 주지 않고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확한 농작물은 생산량이 매우 적어 농민들이 자급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RSCP 사업은 대상 지역농민 조직을 자조모임(Self-Help Group)*, 물 사용자 공동체(Water Users Association) 등 협력단위로 결성해 영농 기술을 교육하며,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 자조모임(Self-Help Group) :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

사업의 첫 단계는 시범영농으로 기존의 농사방법과 전문가들이 코칭해준 농사방법의 효율성을 눈으로 비교하게 하고, 주요 영농 시기별로 농민들에 대한 현장 교육(Farmer Field School)을 진행한다. 시범영농 단계를 거치면서 농민들은 영농 기술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동기를 부여받아 점차 본인의 경지를 열심히 가꾸게 된다. 한편 현지에 파견된 농업전문가는 적기에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도록 검사하고, 농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주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량 종자와 비료를 지원하고 선진 지역을 견학하게 하는 등 생산량 및 농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르완다 농촌공동체, 어떻게 달라졌나?



산주무키자 자펫
– 카제부바 지구 농민 조직 리더

"KOICA가 RCSP 사업을 통해 습지를 관개 농지로 개발해주어 농지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어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줄었고, 질 좋은 토마토를 많이 생산해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세미네가 아미나다부
– 루지감보고 지구 농민협동조합장

"벼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사업을 통해 비료와 종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특히 시장이나 구매자와 농민들을 직접 연결해주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됐죠."



무카레메라 아제라
– 루지감보고 지구 농민그룹 리더

"과거에는 농부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곤 했어요. 이제는 수익을 남겨 저축도 하고, 아이들의 학비와 건강보험 비용을 댈 수 있게 됐습니다."

KOICA의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마을 주민들의 잠재력을 깨우다

매년 약 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1990년대 50%에 이르던 빈곤율이 최근 10%대까지 떨어진 캄보디아. 반면 전체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의 빈곤율은 25%에 달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캄보디아 농촌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01




02

01
한-캄 농촌개발센터.
02
시범마을 중 하나인 Kol 마을의 농업용수로 조성 사업 전(위 사진)과 후(아래 사진) 모습.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

인구 대비 넓은 국토, 메콩강을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벼농사에 적합한 기후 등 캄보디아의 농업 분야 잠재력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여국의 지원도 건축,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계 공무원은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원조 의존도는 높아졌다. KOICA는 기존 원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2014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사업은 세 가지 측면으로 진행 중이다. 먼저, KOICA는 지난 8월 현지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해 캄퐁스푸 주(州)에 한-캄보디아 농촌개발연수원을 개원했다.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 전수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했다. 둘째, 30개 시범마을을 선정해 주민 주도로 사업요구서 작성과 사업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농촌개발부와 협력해 시범마을 개발 성공 사례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다 생생한 사업 현황을 듣기 위해 캄퐁스푸주 농촌개발부 부국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10개 시범마을 운영을 총괄하는 소봉르 마을 이장 옴포씨를 만났다.

"공무원 도움으로 사업요구서 작성 KOICA 전문가 손길 거쳐 식수시설 구축"

소봉르 마을 옴포 이장



Q_소봉르 마을은 어떤 곳인가?

"소봉르 마을은 68ha 가운데 35ha의 쌀 경지, 15ha의 플랜테이션 경지, 18ha의 거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110가구, 52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고상식 목조주택*에서 살며, 소규모 논에서 빗물을 이용해 자급용 벼농사를 짓거나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다."

* **고상식(高床式) 가옥**: 나무기둥이나 말뚝을 이용해 건물 바닥 부분을 땅에서 띄워 건축한 주거 형태.

Q_마을 사람의 식수시설 구축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다.

"먼저 마을 주민들과 마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우리 마을은 수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업자로부터 비싸게 물을 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개발부 공무원의 도움으로 식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요구서를 작성했다. 공무원은 한국으로부터 농촌 개발 경험을 전수받아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완성된 사업요구서는 KOICA 측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평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도와줬다. 사업 승인 후 주민들은 기여금을 내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설 구축에 참여했다. 이렇게 구축된 식수시설을 통해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Q_그밖에 마을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마을 사람들은 KOICA로부터 농사, 축산 및 양식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배운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늘릴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 위생 교육을 받아 가축 사육지와 주거지를 분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화장실 공사, 도로 보수 등도 시행했다."

"마을개발위원회와 주민 서로 신뢰 주인의식 갖고 하니 사업 탄력"

캄퐁스푸주 농촌개발부 첸침 부국장



Q_캄퐁스푸주 농촌개발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이번 프로젝트 사업은 많은 기관과 개발 파트너들, 지방 당국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성공적인 시범마을 운영 경험을 더 많은 마을들과 나눠 이 같은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_캄퐁스푸주 농촌 개발에 있어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

"캄퐁스푸주 농촌은 도로나 관개시설 등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해 생산성이 낮다. 농민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정부의 농촌 개발 예산은 기본적인 행정 비용 정도다. 주로 원조자금에 의존한 지엽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농촌 개발이 공여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역량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Q_캄퐁스푸주의 10개 시범마을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곳은 어디이며,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봉르 마을에서 실시한 식수시설 구축 사업이다. 식수시설은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향후 근처 마을로 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마을개발위원회와 주민 간의 신뢰다. 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을 주민들은 위원회에 신뢰를 갖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했다."

글 · 강효진(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01

인도네시아에 '스마트농업' 전수하는 이다영 봉사단원

"채소보다 화훼작물이 비전 높아 희망의 꽃 심고 싶어요"


02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리아우주 리아우농업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107기 이다영 단원. 그저 '흙이 좋고 꽃이 좋아서'라는 낭만적인 이유로 농업을 전공하게 됐다는 그녀는 영농·화훼 분야에서 찬찬히 경력을 쌓던 중 10년 차에 모든 것을 접고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대학 시절부터 줄곧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봉사단원이 되어 지구촌 곳곳에 씨 뿌리기를 꿈꿔왔다는 것. 그 바람대로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작물과 재배기술을 교육하며 의미 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 그녀와의 일문일답을 전한다.

Q_현재 리아우주의 가장 큰 농업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곳 환경은 어떤가?

"리아우주는 기름땅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땅 아래, 땅 위 모두에서 기름이 생산되는 곳이다. 땅 아래서는 석유가 나오고 땅 위에서는 팜유가 나오는 천혜의 기후와 자원을 가진 곳이다. 리아우농업고등학교는 리아우주청 소속의 특수 3대 고등학교 중 하나인데 일반 학교와 다르게 1년에 네 번 있는 등록금(기성회비)이 면제이며 기숙사가 무료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 보니 중학교에서 성적은 좋으나 고등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가정환경의 학생들과 고등학교가 없는 시골 지역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다."

Q_주력하는 활동과 목적이 궁금하다.

"이 학교에 파견되어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농업기술 교육과 새로운 작물에 대한 교육이다.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으나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채소와 과수가 아닌 화훼작물에 주력하고 있다. 화훼작물의 경우는 채소나 과수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화훼작물은 개당 단가가 비싸다. 특히 꽃이 있는 분화나 화목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 학교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고소득 작물의 재배기술을 습득하여 졸업 후 잘 활용해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란다."

Q_자카르타의 육묘사업과 화훼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지에서는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가?

"현재 인도네시아의 GDP는 2017년 기준 세계 15위다. 국가의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발전하는 부문이 조경 분야다. GDP 1위인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등의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경제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카르타 수도만 보아도 도시의 조경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농약·종자회사인 신젠타라는 회사가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술라웨시섬에 연구소와 재배장을 만들어 화훼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황만 보아도 인도네시아의 화훼시장은 밝다고 볼 수 있다."



03

04

05

01 이다영 단원이 파견 후 가장 큰 성과로 꼽은 리아우농업고등학교의 시설원예장.
02 출근 중인 이다영 단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인도네시아 공무원들과 같은 유니폼으로 갖춰입는다.
03 해바라기밭 조성 초기 모습과 성공적으로 재배된 최근의 모습.
04 실습 위주로 이뤄지는 수업 현장.
05 'Green house'라 불리는 시설원예장 개소식에는 리아우주 부주지사 등 인도네시아 공직자들도 참석해 응원을 보냈다.

Q_현재 파견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성과는 학교에 시설원예장이 신축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설 덕분에 이전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재배기술 교육과 새로운 작물의 재배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해바라기 꽃밭이 조경되었다는 점이다. 직파(땅에 바로 파종)하는 방법이 아닌 포트를 이용해 재배하고 이식하는 교육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바라기의 용도가 씨앗을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새로 알게 됐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조경을 하는 식물이 대부분 목본류(나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처음으로 목본류가 아닌 초화류로 조경을 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Q_근로장학제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다. 근로장학제도를 처음 만드는 것인가?

"장학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근로장학제도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가정형편과 성실성을 기준으로 현재 3학년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재배할 작물의 이론수업은 다 마친 상황이고, 11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배가 성공하게 되면 MOU를 맺은 리아우교육청에 전량을 판매할 예정이며 이 금액에서 40%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Q_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 현장사업장에서 재배에 집중할 계획이다. 작물 재배 및 판매까지 성공시켜 근로장학생들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11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상토 제조도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리아우 지역에서는 원예용 상토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카르타에서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운임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지 상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소 재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화훼작물의 경우에는 이 상토가 작물 고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만약에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상토 제조도 성공한다면 학교의 발전기금을 모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 전수는 이 학교의 원예학과, 식물자원학과 교사들과 공유하고 내가 귀국한 후에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글·정자림(조선뉴스프레스 기자)
사진·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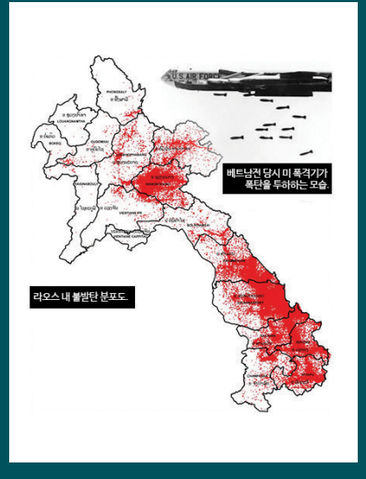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다영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의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7년 11월호 'KOICA 人사이드'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711/content1.php?code=201711_010101



40년 넘은 '뜨거운 감자' 폭탄과의 전쟁

불발탄 제거로 '안전'과 '성장' 꿈꾸다

베트남전쟁 당시 가장 많은 폭탄이 투하된 라오스는 전쟁이 끝난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폭탄의 위험에 떨고 있다. 당시 투하된 폭탄 중 아직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땅에 묻혀 있는 불발탄과 지뢰가 오늘날까지 라오스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를 위해 힘을 모은 국제사회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그리고 라오스 정부의 노력을 알아본다.



글 · 사진 김지은(KOICA 라오스 사무소 영프로페셔널)

라오스 총 17개 주 중
베트남 접경 14개 주에 분포

1964~1973년 사이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발생한 베트남전쟁* 중 미국은 폭격기를 동원해 수많은 폭탄을 투하했다. 특히 라오스는 베트남전쟁 중 폭탄 투하량이 가장 많은 국가다.

라오스의 총 17개 주 중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14개 주에서는 아직까지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중 사반나켓주, 시엥쿠앙주, 사라반주, 캄무안주 등 4개 주가 가장 심각하다. 라오스 전역 9100여개 마을 중 25%가 불발탄에 오염됐으며,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라오스에 남아있는 불발탄만 8000만개로 추정된다.

매주 평균 최소 1명은 불발탄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실정이다. 종전 이후 현재까지 사망, 불구 등 피해자 수가 2만명을 초과했다. 2000~2009년 10년간 총 피해자 중 40%는 어린이이며, 대부분이 불발탄인지 모르고 만지고 놀다가 폭발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다. 불발탄은 위치를 알 수 없어 도로, 건물 공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며, 삶의 위협이자 라오스 경제 · 사회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01
불발탄 제거 사업을 위한 현장 회의.
02
라오스의 불발탄 문제를 위해 라오스 정부는 물론 KOICA와 UNDP 등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 **베트남전쟁** :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을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

UNDP 등 국제사회 참여 · · ·
KOICA도 적극 제거 작업

라오스 정부는 불발탄이 국민의 생활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농촌개발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임을 고려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1966년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지원으로 라오스 정부는 불발탄 제거사업 담당기구 'UXO Lao'를 설립했다. 이어 2006년 UNDP의 지원으로 불발탄제거청을 설립했다.

NRA는 불발탄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라오스 내 모든 불발탄 제거사업 지원기관은 NRA 감독하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2010년부터는 9번째 UN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로 '불발탄 영향감소'를 채택하고, 2015년에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자체 개발목표로 불발탄 제거를 채택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16년부터 향후 3년 동안 라오스 내 불발탄 제거를 위해 9000만달러, 과거 2년 대비 3배 증가한 액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국제사회는 '불발탄 영향 감소(Reduce the Impact of UXO)'란 공동 목표 아래 UNDP를 통한 협력 ·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KOICA도 2014~2017년간 300만달러 규모의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을 통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및 불발탄 오염지역 11개 주에서 UNDP와 협력해 불발탄 제거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뢰위험 교육, 불발탄 피해자 지원, 불발탄 제거팀 훈련, 불발탄 제거 활동지원, 불발탄제거청 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아이들이 불발탄 걱정 없이 라오스의 모든 땅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두 얼굴의 섬 '민다나오'의 개발과 현실
잃어버린 낙원에서 약속의 땅으로

01

지난 2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신규 프로젝트 사업 예비조사차 민다나오섬을 횡단한 필리핀사무소 이상백 부소장. 서쪽 끝 코타바토시에서 시작해 동쪽 끝 다바오시까지 3박4일의 여정을 통해 민다나오의 현실과 이에 대한 KOICA의 개발 계획을 짚어본다.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면 아마도 최근 마라위 사태*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계엄령이나 치안불안 등을 쉽게 떠올린다. 민다나오 지역이 오랜 내전과 정치적 · 종교적 분쟁으로 인해 필리핀에서도 가장 빈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지에서 민다나오섬은 델몬트 주스, 돌(Dole) 바나나, 코코넛과 같은 과일이 풍부해 지상낙원이라 불린다. 민다나오섬에 있는 다바오시(市)는 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20년 이상 시장으로 지내면서 필리핀 내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 **마라위 사태** : 지난 5월 이슬람 반군이 민다나오섬 마라위시를 점령하면서 발생한 사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즉각 남부 민다나오 전역에 6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함. 현재 반군대원 381명과 필리핀 군경 90명, 민간인 39명 등 510명이 사망함.

민다나오 개발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열의

필리핀에서는 민다나오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마라위 사태로 다소 소강상태지만 두테르테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민다나오 개발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개발포럼에 참석했을 때 5개 분과회의 중 하나가 민다나오 개발을 주제로 했다. 필리핀에서는 민다나오 개발청*이라는 별도 정부기구도 만들어 민다나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민다나오 개발청 계획에 따르면, 민다나오 지역은 ①청렴, 책무 및 참여의 통치 ②빈곤감퇴 및 빈곤층과 약자 권리 강화 ③급속, 포괄적, 지속적인 경제성장 ④정의, 평화유지와 법치 ⑤환경유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등 5가지 발전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각 분야에 연관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 **민다나오 개발청** : 1992년 설립된 후 약 20년간 민다나오 전반의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필리핀 전체 국가개발 전략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국가개발청,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구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방사모로 개발청과 협력 관계를 맺고 기획, 자원공유, 역량강화 등을 모색함.

민다나오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연 가능할까?

이번 민다나오섬 방문은 필리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지원을 요청한 '민다나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농촌 비즈니스 강화사업'을 계기로 이뤄졌다. 사업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마긴다나오주와 북코타바토주 농수산업 생업복구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다나오섬 방사모르주 1개 지역과 방사모르주에 속하지 않은 4개 사업 수행 대상지를 방문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필리핀대사관, 유엔보안국 등과 협의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UN 차량의 선탑 안내를 통해 이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실상 민다나오 지역을 방문해 살펴보니 여느 필리핀 시골 마을의 농촌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끝없이 펼쳐진 바나나와 코코넛 나무, 곳곳의 협곡과 멀리 보이는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처럼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물론 현지가이드 역할을 했던 FAO 직원이 우리가 지나가는 도로에서 5분만 들어가면 모로반군(MILF ·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의 군사기지가 있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차마 더 이상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UN 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 :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하나로,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KOICA, 직업훈련원 개설하고 한국 초청연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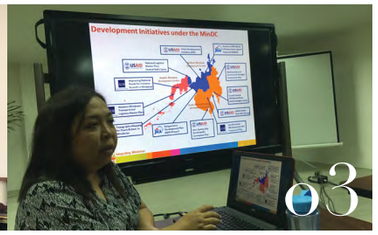
KOICA는 그동안 민다나오 지역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사업, 봉사단 파견사업, 연수생 초청사업과 민간단체(NGO)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중 대표 사업은 단연 한 ·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2003~2005 · 500만달러)이다.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은 필리핀 교육부의 다바오 지부로, 필리핀 내에서도 그 규모나 실력 면에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직업훈련원을 신설한 이후 2005년부터 지금까지 24명의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6개 직종, 자동차(3명) · 컴퓨터(4명) · 한국어교육(11명) · 기계(1명) · 체육교육(1명) · 태권도(4명))을 파견했으며, 단원들은 봉사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민간단체인 JTS를 통해서도 민다나오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해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민다나오 개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며칠 전 방송을 통해 '잃어버린 낙원, 민다나오를 가다'라는 르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민다나오섬이 분쟁과 다툼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이야기를 싹틔우고 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민다나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분쟁과 아픔의 땅인 민다나오섬에도 지구촌 여느 곳처럼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마을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재민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을 마라위 지역을 비롯한 민다나오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과 희망을 되찾고 민다나오 지역이 다시 평화와 지상낙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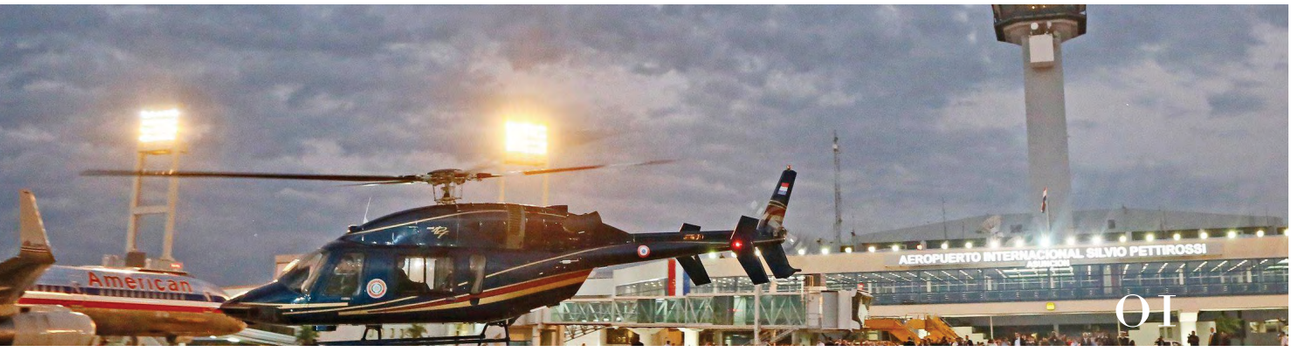






01 민다나오섬 코코넛 나무.
02 민다나오 출장 사진.
03 민다나오 개발계획 및 프로젝트.

글 · 이상백(KOICA 필리핀 사무소 부소장)



01


03



04

KOICA의 파라과이 항공 발전 마스터플랜 사업
남미의 심장에 항공 허브의 새싹 틔우다

파라과이는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의 만성적 문제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그중에서도 파라과이의 항공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파라과이 국가 항공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수행했다.



02

내륙이라 항공 발전 필요성… 인천공항 '허브 모델' 벤치마킹

파라과이는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내륙국가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해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육로가 막히면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 국외 이동이 어렵다. 하지만 육 · 항공 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파라과이는 남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항공 · 물류 산업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파라과이는 지정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이점을 살려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2030에 교통 인프라 개선과 건설, 효율적인 교통 개발을 내걸어 인프라 확대 의지를 굳건히 했다. KOICA는 파라과이가 남미 항공 · 물류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손잡고 '파라과이 국가 항공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실시했다.

파라과이 정부, 항공 · 수송 산업 발전 최우선 과제로 지정

파라과이에서는 역내 교역량이 전체 수출입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파라과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항공 · 수송 산업 발전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역내 무역을 뛰어넘는 무역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01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
02 '파라과이 국가 항공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회. 파라과이 항공청 및 사업 관계자, KOICA,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해 파라과이 항공산업 발전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03 조한덕 KOICA 파라과이 사무소장(왼쪽 끝),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안민식 대사(가운데).
04 조한덕 KOICA 파라과이 사무소장과 파라과이 항공청장 루이스 마누엘 아귀레.

KOICA는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파라과이 국제공항이 역내 국가와 태평양 연안국을 포괄하는 역량을 갖춘, 남미 내 항공물류산업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적 항공사와 저가항공사 설립, 화물항공노선 설립, 주요 12개 공항 재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KOICA는 공항 활성화에 발 맞춰 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복합 에어시티 개발' 비전(Vision)도 수립했다. 비전 개발에는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해원까치종합건축사, 삼정KPMG, 한국교통연구원(KOTI), 유신도 참여했다. KOICA는 다양한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했다. 마스터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는 파라과이 공항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을 찾아 실무연수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파라과이 관계자들에게 실무학습과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항 개발과 관리 경험을 전수했다. 파라과이 관계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허브화를 위한 전략과 관리방안'이란 주제의 실무학습을 수강한 후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공항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시설물을 견학하면서 파라과이 공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통합적인 항공 인프라 사업의 도약을 도모했다.

아순시온에선 투자전략설명회도 가져

지난 6월 26일 KOICA는 아순시온 월드트레이드센터(WTC)에서 19개월 동안의 장정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파라과이 국가 항공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회 및 투자전략설명회(IR)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파라과이 항공청 및 사업 관계자, KOICA,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해 파라과이 항공산업 발전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개회식에서 루이스 아귀레(Luis Aquirre) 항공청장은 "이 마스터플랜을 파라과이 항공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파라과이 항공산업에 박차를 가해 남미 항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힘써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글 · 사진 박달해(KOICA 파라과이 사무소 영프로페셔널)

| | | 필리핀 갯벌에서 꼬막을 캔다고?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KOICA, 필리핀에 양식기술 제공





김용경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이사장

"고품질의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하면 현지 어민도, 우리도 좋은 프로젝트"

열대·아열대지방 해안선에 자라는 망그로브 나무는 '바다의 산림'으로 불린다. 지구온난화와 홍수를 방지하며, 양질의 갯벌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리핀 해안에서는 이 망그로브숲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친환경 양식업 기술과 판로 제공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이 힘을 보태고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서다.

* 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을 KOICA의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개도국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01 망그로브숲 친환경 새우양식장.
02 수산물 운반 냉동차량 앞에서 KOICA 직원들과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감사, KOICA 임예지 직원, 김용경 조합 이사장, 이상백 KOICA 필리핀 사무소 부소장.

Q_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의 '필리핀 KASAMA* 망그로브숲 친환경 수산양식을 통한 가치사슬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친환경 수산양식업을 통해 최하위 소득계층인 망그로브숲 지역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에는 고품질 수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처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양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양식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산업은 지역주민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생계수단이지만, 소규모 어업 위주라 수입이 일정치 않고 판매경로도 제한적이라 큰 소득을 얻기 어렵다."

* KASAMA(Kalibo Save the Mangroves Association): 1989년 망그로브숲 복원사업을 위해 구성된 NGO 단체. 필리핀 환경부에 칼리보 지역 망그로브숲에 대한 영구적 관리권한을 획득했다.

Q_친환경 수산양식 사업을 필리핀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한 조합원이 우연히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망그로브숲의 넓은 갯벌을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KASAMA가 복원한 양질의 갯벌에서 친환경적으로 꼬막을 양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Q_이 사업이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에 좋은 점은 뭘까?

"국내 수산물 소비량의 약 80%는 원양어업 및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입산 어패류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품질 문제도 제기된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 고품질의 친환경 양식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_KOICA와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KASAMA가 각각 담당하는 일은 뭔가?

"KOICA는 전체 예산의 약 70%를 지원하며 현지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협동조합은 각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매인이 대다수라, 이런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해 KOICA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은 현지 양식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KASAMA는 현지 주민 네트워킹과 생태계 보호, 지역주민 복지를 맡고 있다."

Q_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포용적 비즈니스'의 본질인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현지 협동조합과 KASAMA,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이 함께 사회적 기업 'THE TWO FISH COMPANY'를 설립해 사업운영을 맡겼다. 사업 이윤의 40%는 현지 협동조합에 배당하고, 그 전액이 지역주민들에게 배분되게 했다."

Q_나머지 이윤은 어떻게 활용되나?

"나머지 60%는, 각각 30%씩 KASAMA와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에 배당된다. 해당 배당금으로 KASAMA는 친환경 하수처리장과 공동화장실을 설립하는 등 주민 복지와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은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지 시설 유지보수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Q_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2019년까지 3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일 예정이다. 취급품목도 수산물에서 농산품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망그로브숲 근처 망고농장들과 협업해 양식장의 냉동창고를 활용한 냉동망고 등의 상품화를 고려 중이다."

글·이명지(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카툰·홍세훈 작가

||| 베트남 수공업자에게 커머스 플랫폼 통한 해외 판로 제공, IT 기업 메가존의 메가 서포트





사업 총괄 최영란 메가존 이사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 눈높이 충족시키면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시장 확대"

수공예는 오랜 기간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주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상품 유통경로나 판로가 잘 마련되지 않아 베트남 수공업자들은 상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10분의 1 정도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한국 IT 서비스 기업 메가존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이들에게 해외 판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메가존 최영란 이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을 KOICA의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개도국의 경제 ·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개도국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다.

Q_메가존의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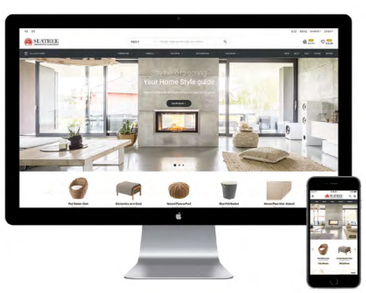
"글로벌 전자상거래(이하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베트남 수공업자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제품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편으로는 배송, 품질검사, 사진촬영, 상품소싱 등 커머스 현지 인력을 육성하여 베트남 수공예산업의 가치사슬을 강화한다."

Q_클라우드 · 호스팅,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에이전시 사업을 운영 중인 메가존이 '베트남'에서 수공예산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메가존은 베트남에 법인이 있다 보니 2013년 사회공헌 차원에서 베트남 하노이 직업기술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IT 교육을 제공했다. 이 일로 출장을 다니면서 베트남 빈민층 대다수가 사는 농촌지역 수공업자들은 고품질의 수공예품을 생산하지만, 유통경로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판로도 마땅치 않아 최종 판매금액의 10% 이하를 대가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가존이 보유한 '글로머스(Glomerce)'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쇼핑몰 솔루션을 활용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Q_다른 IBS 사업과 다르게 '컨소시엄'으로 진행 중이다. 어떻게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게 되었나.

"처음부터 컨소시엄을 생각한 건 아니었다. 더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업의



03

01
베트남 수공예품과 수공업자.
02
베트남 무역진흥공사, 메가존, KOICA의 사업 담당자들.
03
웹과 모바일로 제공될 커머스 플랫폼의 메인 화면.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지원 정책을 찾던 중 KOICA의 민관협력 사업을 알게 됐고, 메가존의 커머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커머스만으로 빈민층이나 영세 수공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KOICA의 제안대로 상품개발 교육을 위해 K.O.A와 디자인거점센터를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KIDP)과 컨소시엄을 진행하게 됐다. 메가존과 KOICA가 함께 사업을 만들어간 셈이다."

Q_이번에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떤가.

"이번 출장에서는 상품소싱을 위해 소상공인과 수공업자들을 만나고, 해당 상품이 한국에서 판매가치가 있는지, 재고 수량은 얼만지, 한국까지 파손되지 않고 배송되는지 확인했다. 출장 중 만난 수혜자 대부분은 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 방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의욕을 보였다. 어쩌면 돌아다니며 이들에게 이런 새로운 기회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큰 가치 창출이 아닐까 생각했다."

Q_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제 시행 6개월에 불과해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선 공모전을 통해 디자이너와 수공업자를 연계해 자체상품도 개발해 보고, 12월에 오픈할 한-베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이 오픈되면 먼저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운영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켰다면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시장을 넓혀갈 예정이다."

글 · 이명지(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 메가존
카툰 · 홍세훈 작가

||| 최빈국 아이티에 최신 교육환경 조성, 세아상역, 학교 세워 희망을 전파하다





사업 주도 김진아 세아상역 이사
"아이티 미래 위한 꿈나무 육성 회사와 아이티 모두가 윈윈"

2010년 강진으로 아이티 전국의 학교 23%가 붕괴됐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아이티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아이티 정부는 교육환경을 재건하고자 했으나, 지방까지 혜택이 도달하긴 어려웠다. 이에 한국의 의류수출기업인 세아상역이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2012년부터 아이티 카라콜에 S&H School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김진아 세아상역 이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을 KOICA의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개도국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다.

Q_KOICA와 2012년에 390명 정원의 초등학교를 설립했고, 이번에는 중·고등학교를 설립했다고 들었다.

"초등학교를 4년간 운영하다 보니 '지속가능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현지의 교육 사정상 초등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다닐 만한 인근의 상위 학교가 없어 졸업생들도 이후의 고등교육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에 2016년부터 중·고등학교를 신설해 운영하게 됐다."

Q_해당 사업을 '아이티'에서 진행한 이유가 있나.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티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도 있지만, 아이티는 세아상역의 장기적 비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처이기도 하다. 미국-아이티 무역협정에 따라 아이티산 의류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티 카라콜 산업단지에 2012년부터 6개 봉제공장을 지어 1만명이 넘는 현지인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꾸준히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덕분에 현지 인력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국가의 미래는 교육'이라는 생각에 KOICA와 S&H School을 설립해 지역 아동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Q_세아상역이 KOICA IBS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세아상역과 같이 해외 생산기지가 있는 기업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필수다. 단순히 CSR 차원의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법을 찾다가 IBS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세아상역과 KOICA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지역 근로자들은 의류 기술을 익혀 소득이 늘고, 근로자의 자녀들은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Q_최빈국인 아이티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힘든 점은 없었나.

"사업 초기에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비가 비싼 국제학교로 오해를 샀다. 현지 학교와 달리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사진, 최신식 시설을 갖춘 현대식 학교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인 것 같다.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아이티 교육부 산하 학교임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지역교류센터' 기능을 하도록 했다. 매년 학교 시설을 활용해 부산대 의과대학, 미국 조지워싱턴대 간호학과와 의료봉사도 진행 중이다."

Q_향후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S&H School은 인근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싶어하는 1순위 학교로 성장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입학하여 초·중·고 종합교육기관이 되면, 의류제조업 견학이나 산학연계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KOICA와 협력해 의류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자를 생산하는 현지 공장을 세우고, 아이티 현지 사회적 기업에 양도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01
세아중학교 외경.
02
아이티 S&H Global 내부.
03
2017년 세아중학교 수업 장면.

글·이명지(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세아상역
카툰·홍세훈 작가